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의 추진 내용과 과제

### 1.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의 추진 배경

#### □ EU의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응

○ 천연가스 수송에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나부코 가스관 건설사업이 EU의 주도로 본격화되자,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건설하는 나부코 가스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표 1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총 길 이 | 흑해 해저 연안만 900km, 여타 지역은 현재 미정   |
| 경 로   | 러시아 - (흑해 해저) - 불가리아 - 유럽의 남부(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및 북부(세르비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북부) |
| 수 송 량 | 연 630억m <sup>3</sup>  |
| 건설비용  | 80억~250억 유로(약 105억~330억 달러)   |
| 사 업 주 |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이탈리아 에니(Eni)   |
| 공사기간  | 2011년 2월 기술 및 경제성 평가 후 공사 계획<br>2015년 12월 완공, 2016년 가스공급 개시 예정                            |

- 러시아는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을 건설하여 자국 천연가스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유럽 시장을 더욱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sup>1)</sup>

-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가스관 경유국과 마찰이 잦아 가스를 안정적으로 유럽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 관련국 정부간 협정 체결로 사업 추진 가속화

- 2007년 6월부터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과 이탈리아 에니(Eni)가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후, 불가리아('08. 1.)<sup>2)</sup>, 세르비아('08. 1.)<sup>3)</sup>, 헝가리('08. 2.), 그리스('08. 4.), 슬로베니아('09. 11.), 크로아티아('10. 3.), 오스트리아('10. 4.)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음.

- 에너지를 무기로 하는 외교 전략에 따라 러시아는 에너지의 추가 공급 등을 약속하며 각국의 사업 동참을 호소함.

- 러시아가 향후 유럽에 공급할 가스의 35%를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국들의 수가 증가했음.

## 2.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사업의 추진 내용

#### □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송 가스관 건설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시작해 흑해 해저를 거쳐 불가리아를 기점으로 두 개 지역으로 분리됨. 하나는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 남부로, 다른 하나는 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로 연결될 계획임.

1) 한국수출입은행,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수은해외경제, 2009. 8.

2)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참여비율은 50:50으로 결정됨.

3)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참여비율은 51:49로 결정됨.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은 흑해 해저 구간만 해도 총길이가 900km에 달하는 가스관으로서, 2007년 6월부터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이탈리아의 에니가 가스관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옴.
- 2009년 5월에 가스프롬과 에니, 불가리아의 에너지 홀딩, 그리스의 DESFA, 세르비아의 Serbiagaz 등 4개국 가스회사가 합자회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가 본격화됨.

< 그림 1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루트



자료: RIA NOVOSTI.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의 가스공급국은 러시아와 과거 러시아 통합 에너지 시스템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며, 주요 가스 수요국은 유럽 각국임.
- 수송량은 연간 630억 m³로 유럽 총 소비량의 10%를 상회함.

## □ 사우스스트림 사업의 본격화로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타격

-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는 가스 공급국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가스 수입 가격의 인상 및 수입물량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나부코 프로젝트 참여를 견제하고 있음.
- 그러나 EU는 나부코 가스관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 등 3개 국제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할 예정임.
  -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금융공사(IFC)가 각각 20억 유로, 12억 유로, 8억 유로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프로젝트 총비용(79억 유로)의 50.6%에 해당하는 규모임.

## □ 주변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 표명

-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80%가 자국을 경유하고 있어 사우스스트림 가스관이 건설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의 대상국에서 자국이 배제되자 동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음.
- 독일 BASF의 자회사 Wintershall은 2010년 말까지 동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프랑스의 Edf(Electricite de France)도 참여하기로 확정하였음.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도 프로젝트 참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3. 향후 과제

## □ 관련 당사국들과의 정치적 문제 해결이 시급

- 2010년 7월 선출된 친서방 성향의 보리소프(Borisov) 신임 불가리아 총리는 환경 문제를 내세우며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를 재고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음.
  - 이와 관련, 불가리아를 경유하는 천연가스 공급경로가 루마니아로 이동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불가리아가 이를 양보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다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나부코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이 향후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 가스 공급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확대 요구와 나부코 프로젝트 참여방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 최대 250억 유로(330억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비용 조달이 큰 부담

- 글로벌 경기침체로 관련국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리스의 경우 올해 IMF로부터 1,100억 유로(1,430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EU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분야에 2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향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 재원의 안정적 조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됨.

책임조사역 허정옥, 인턴 이재상  
(☎ 02-3779-6653)  
E-mail: [johuh@koreaexim.go.kr](mailto:johuh@koreaexim.go.kr)